



엄마, 아니 경자씨... 다시 꿈 찾는 여정 응원합니다

광주문화재단 '울엄마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경자씨와 재봉틀' 눈길

소리 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녀.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이름으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당신.

십일곱 경자씨는 어느 날 버려진 낡은 재봉틀을 발견하고, 입고 싶은 옷을 그려 동네 양장점을 찾아갔던 스물일곱 살을 떠올린다. 평생을 지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야 했던 경자씨. 그녀에게 '어머니, 아내, 며느리'가 아닌 '경자씨'란 이름을 되찾아주는 이색 문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광주시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경자씨의 사연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자 초대된 10명의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이날 소개된 경자씨는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진행한 프로그램 '울엄마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경자씨와 재봉틀'의 기획자 임아영 사회문화예술교육담당자의 어머니이다. '경자씨'에는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영상은 한국전쟁과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

어머니·아내·며느리로 굴곡진 시대 관통한 이 땅의 '경자씨'들 문화프로그램 통해 '나로 살기' 시작한다

동 등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늘 '주역'은 아니었지만 삶의 고통과 책임은 늘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의 몫이었다. 혁명과 경제발전의 끝은 늘 남자와 자식들의 차지였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지 않는 남편과 자식을 기다린 것은 이 땅 여성의 삶이었다.

화면에 등장하는 경자씨의 이야기는 이랬다. 남편과 함께 평생 학원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고, 이제는 그 딸이 낳은 손녀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마땅히 만날 친구도 없이 종일 남편과 집에서 누구누

구의 할머니, 아내, 어머니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울엄마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에 선정된 다른 참가들의 사연도 엿보듯했다.

지난 1949년 완도 여촌마을에서 8남매 중 맏딸로 태어난 '송미정씨의 어머니'는 결혼을 하고도 남편의 형제와 자신의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다. 양가의 동생들이 성장한 뒤에는 해외 유학을 가는 자신의 아들 뒷바라지를 했다. 그녀는 목 수술을 받은 뒤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 뒤늦게 대학에 입학했다.

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잠자공장에서 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도 참가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런 그녀에게 딸은 이날 "예자씨 미안해요, 고마워요, 행복해요"라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줬다.

이날 '10명의 경자씨'는 남편을 잃고 자신의 꿈을 찾게 된 스위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할머니와 판제리'를 함께 관람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봤다. 임아영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은 '엄마' '아내' '아줌마' '할머니'로 불렸던 이



지난 22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울엄마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땅의 모든 여성이 자신의 이름 '경자씨'를 다시 찾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선정된 10명의 여성이 자신들의 '한 때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프로그램이

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나의 한때 꿈'을 연극을 통해 이야기하

고, 1박 2일 여행을 직접 기획해 길을 떠나며 인생의 시작점을 새로 찍는 등의 행사로 오는 11월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나의 한때 꿈'을 연극을 통해 이야기하

광주의 가을, 연극이 흥날리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제17회 광주 소극장 축제가 오는 11월 8일까지 공연 1번지 등 광주 지역 소극장에서 열린다.

극단 DIC는 '실례합니다2'를 공연한다. 24~25일, 30일~11월 1일 공연일뿐이다.

스물 아홉 모데슬로 이대로는 오랜만에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지만 바람 맞고 돌아온다. 그 틈을 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소도덕은 이대로는 갑자기 들어닥치자 보험회사 직원 행세를 하고, 서로 신세 타령을 하던 두 사람은 이대로를 멋진 남자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정문희씨가 희곡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김장준·송민중·이현숙씨가 출연한다.

추억의 변사를 만날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된다. 극단 Y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

'소극장 축제' 내달 8일까지 공연 1번지 등서 '실례합니다2'·변사극 '검사와 여선생' 등 풍성

■ 소극장 축제 일정

공연	날짜	장소
실례합니다2	24~25일·30일~11월 1일	공연일번지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	25~27일(토·일 오후 5시·월 오후 8시)	CD아트홀
환상교향곡	29~31일 오후 7시30분	예술극장 통
황소 지붕 위로 울리기	11월1~3일·6~8일(토 오후 7시·일 오후 5시·평일 오후 7시30분)	

생'을 공연한다. 25~27일(토·일 오후 5시, 월 오후 8시) CD아트홀.

작품의 기본 틀은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이다. 영춘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을 몰입양면 도 외주는 정 많은 교사다. 세월이 흘러 영춘

은 살인 사건 피의자로 재판정에 서게 되고, 그가 어릴 적 도와주었던 제자는 검사로 그녀 옆에 선다.

노희철씨가 변사로 열연하며 정삼·김광웅·강인영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극단 시민의 '환상교향곡'은 29~31일

오후 7시30분 예술극장 통에서 공연된다.

작품의 주인공은 유명한 지휘자와 첼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으며 자란 아들 천수다. 수년만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 요양원에 간 천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점차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처럼 음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천수가 만들어 놓은 음악과 함께 하며 두 사람은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간다. 윤희철·이현기·표진휘씨가 출연한다. 연출은 김민호씨.

극단 청춘의 '황소 지붕 위로 울리기'는 11월1일~3일, 6~8일(토 오후 7시·일 오후 5시·평일 오후 7시30분) 예술극장 통에서 공연된다.

주인공은 결혼 7년차 부부. 5년전 실직하고 전업주부가 역할을 하는 남편과 중학교 교사인 아내는 지루한 현실로 부터 변화를 모색하며 둘만의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남편이 정한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차가져 고장 나면서 여행은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유산 '줄타기' 무등산서 펼쳐져

전통문화관, 내일 '호남우도농악...'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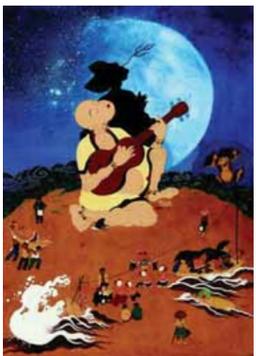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록된 한국 전통 줄타기 공연이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하 전통문화관)은 25일 오후 3시 토요일공연으로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광주광역시지회를 초청, '호남우도농악' 그리고 줄타기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1부 호남우도농악 판굿에 이어 2부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예능보유자인 김대균의 정통 '줄타기' 공연으로 구성됐다.

줄타기 무형문화재 김대균(줄판대)과 남해웅(어릿광대)의 제담·놀이와 삼현육각 연주가 흥을 돋운다. 26일 오후 3시에는 서석당에서 일요특별기획공연으로 서다희 가야금병창발표회 '심청'이 열린다. 진도군립국악단 상임단원인 서다희는 단가 '만고강산', 판소리 심청가 중 '곡씨부인 유언대목'과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화초타령~심봉사 논뜨는 대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야금병창단 '별빛가얏고'와 창작국악그룹 '그루'가 특별출연하며, 장단은 박시양(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전수조교)이 맡는다. 무료 관람. 문의 062-232-1501~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남진 작 '연가'

제19회 광주미술상 수상작가전

28일~11월 5일 우제길미술관...27일까지 20회 미술상 공모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우제길)는 오는 28일부터 11월5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제19회 광주미술상 수상작가전을 연다.

광주미술상은 광주지역 미술인들이 기금을 모아 후배작가 양성을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에는 임남진씨가 대상을 받았다. 차석상은 박소빈, 이정기씨다. 이번 수상작가전에서는 수상작가 3명

이 각각 5~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임씨는 몽환적이고 풍자적인 작품들을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표현한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임씨는 광주시립미술관 제6기 북경장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하정중 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용의 작가'로 불리는 박씨는 연필의 선으로 몽환적이고 에로리적인 세계를 동양화적으로 표현한 대작을 선보인다. 목

포대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북경장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고, 뉴욕, 북경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거울을 붙여 만든 조형 작품을 전시한다. 개막은 오는 28일 오후 5시다.

한편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제20회 광주미술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광주·전남 출신 및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미술인으로 만 2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청년 작가 또는 단체다.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문의 010-2608-273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